

기도

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히 낮아지길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까?
2.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적은 언제입니까?

신앙

바이블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전도를 통해 세워졌다. 데살로니가에 보내진 서신은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과 종말관을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 대해 감사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권고를 전해준다.

구역 공과

2022년 1월 30일

자기의 집을 지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자기의 집을 지라

에스겔 19장 10~14절 (23장, 337장)

본문은 에스겔을 통해서 은혜 받은 남유다와 교만하여 멸망당한 유다에 대해 애가를 짓게 하시고,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을 믿음으로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10~11절).

유다를 네 피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합니다(10절a). 이 말은 유다의 왕통을 말하고, 유다 나라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유다가 받은 은혜는 첫째,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습니다(10절b). 유다는 마치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돌보아 주거나 불쌍히 여긴 자가 없어서 들에 버려진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벗겨진 자와 같은 유다를 살려주시고, 옷을 입혀 주고, 길러주신 것과 같았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잘 자라나서 견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자랐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길러주시고, 큰 복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유다가 받은 은혜는 둘째, 권세 잡은 규가 되게 하셨습니다(11절a). 규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로써 왕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이 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 왕권을 강하게 하였고,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배반이나 반역을 통해 왕이 여러 차례 바뀌게 되었고, 결국 앗수르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유다가 받은 은혜는 셋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11절b).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를 가리키는데 시드기야는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시드기야의 전에 왕이 여호야긴이었는데 애굽에 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잡아서 가두고, 대신해서 시드기야를 세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느부갓네살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뛰어나도록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건재하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벌거벗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가의 심은 포도나무처럼 불들어주시고, 길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패망을 하게 된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12~14절).

분노 중에 뽀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12절). 유다가 분노 중에 뽀혀서 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이 불에 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든 땅에 심어진바 된 것처럼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13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는 것처럼 다시는 왕이 나지 못하고, 소망 없는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14절a). 그렇다면 왜 은혜를 받았던 유다가 결국 패망하였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 첫째,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는데 교만해져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왕이 된 줄로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거짓선지자들이 시드기야에게 거짓으로 바벨론을 대적 해야 한다고 부추겼는데, 시드기야가 자신의 권세와 힘을 믿고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언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기의 집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셨습니다(렘38:17~20).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셨는데 듣지 않아 마지막으로 경고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눈이 뽀혀 죽게 되고,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에스겔을 통해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14절b).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짐이 결코 가볍거나 쉬운 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을 지기를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짐을 지면 주님이 대신 그 짐을 져주시고, 짐을 가볍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 없는 나라에 새로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기의 집을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우리도 벌거벗은 자와 같고, 들에 버려진 자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집을 믿음으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